

일제강점기 금속제 신선로의 제작양상과 소비문화

김세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공예사 전공

sharing@ewha.ac.kr

I. 머리말

II. 조선시대 신선로의 유래와 인식의 형성

III. 일제강점기 신선로의 제작 형태와 양상

IV. 신선로의 소비문화 변화와 역할의 확장

V. 맷음말

I . 머리말

19세기 말-20세기 초 공예는 정체성과 역할 재편이 진행된 격변의 시기였다. 공예품의 제작은 기존의 일반적 제작방식인 수공예에 새로운 제작수단인 기계가 더해졌다. 수공예는 과거보다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일상용으로 소비되었고, 여기에 예술과 창작, 표상과 같은 상징성이 더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수공예의 역할 확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비가 확장된 것은 기계로 제작된 일상기였다. 그리고 기계가 일상용품의 제작을, 수공예는 작가의 정체성과 창의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제작 중심으로 분화해 고착됐다.

이러한 근대기 공예의 전반적 변화와 체제 정립에 대한 연구는 선학의 연구 성과로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되었다.¹ 이 성과들을 토대로 여러 갈래의 후속 연구도 상당량 축적되었다. 이 중 근대 유입된 서양식 문물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제작과 소비,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 시기 극적 변화 중 하나였기에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되었다.² 반면 실 사용된 구체적인

1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미술문화, 2008)의 연구를 시작으로,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경인문화사, 2014); 정지희, 『일제강점기 은공예품과 제작소』(민속원, 2018) 등이 있다.

2 2010년 이후의 성과를 소략해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품은 최지혜, 「테일러 상회의 무역활동과 가구: 전통가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학』 39(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엄승희,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사용된 프랑스 자기의 유입과 특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학』 39(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0); 도안은 신유미, 「한일 근대 도안 연구: 공예 도안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서유정, 「근대 일본도자회사 수출도자 연구: 수출도자에 보이는 도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제작과 제작자 관련 논문은 최공호, 「김봉룡의 나전기술과 근대 공예적 성취」, 『미술사연구』 32(미술사연구회, 2017); 노유니아, 「조선나전사와 한국 근대 나전칠기」, 『문화재』 49-2(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등 다수의 논문이

기종을 중심으로 한 제작, 소비의 세부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근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전승된 일상기에 대한 연구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반적인 기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더욱 그러하다.

전통적인 쓰임과 정체성이 계승된 기물 중에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전승된 것도 있지만,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상징물로만 남거나, 쓰임 자체가 축소 또는 확대된 것도 있다. 이러한 공예품의 정체성과 역할 재편은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지닌 19세기 말-20세기 초 더욱 가속화되었다. 본 논문은 근대 이전의 문화를 간직한 공예품이 근대의 변화한 시대상과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정체성과 역할이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제작 및 사용양상을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개항과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대상은 공통이지만 공예품 각 기종이 지닌 세부적 쓰임은 다르다. 또, 기종별로 적용되는 제작, 유통, 소비환경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에 19세기 말-20세기 초 사용된 기종 하나를 택해 제작과 소비 환경을 살펴 대상 기종의 제작, 소비 양상과 변모한 성격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까지의 정체성과 용도를 전승하고 근대 부여된 새로운 용도와 제작 및 소비 양상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종인 신선로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 시기 신선로는 여러 논고에서 연구주제의 사례로 제시된 바 있으나³, 신선로라는 기종 자체에 대한 연구는

있다.

3 정지희, 『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서지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윤채원, 「한국 근대 공예품의 명승고적(名勝古跡)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김안나, 「운현궁 금속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등에서 연구주제 사례 기종으로 신선로를 제시했다.

거의 없다. 신선로는 열구자탕을 끓이는 조리도구이자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일상기의 쓰임을 유지하고 동시에 근대 대두된 용도가 공존한다. 생산과 유통 주체도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근대 활성화된 여러 형태가 확인된다. 의장도 기존의 형태와 문양 소재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문양 소재가 적용되었다.

한편 이 시기 신선로는 금속과 함께 곱돌로도 제작되었다. 하지만 금속제 신선로의 현전하는 유물과 관련 문헌 기록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소비 양상이 확인되어 본 논문에서는 금속제 신선로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했다.

II. 조선시대 신선로의 유래와 인식의 형성

1. 신선로의 유래와 구조

열구자탕(悅口子湯, 悅口旨湯)에 사용되는 신선로(神仙爐)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릇이다. 신선로는 고기와 생선, 갖은 채소를 끓여가며 먹는 음식인 열구자탕(悅口子湯, 悅口旨湯)의 육수와 재료를 끓이고 익히는 조리도구이자, 열구자탕을 담아 식지 않게 데워가며 먹는 식기이다. 신선로의 유래에 대해 홍선표(洪善杓)는 『조선요리학』(1940)에서 연산군 대 문신인 정희량(鄭希良: 1469-1502)이 주역의 쾌인 수화기제(水火既濟)를 본 따 화로를 만든 뒤, 이를 가지고 다니며 여러 가지 채소를 한데 익혀 먹은 데서 열구자탕과 신선로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 삼국시대 신선로 형태의 토기를 근거로 고대부터 열구자탕과 비슷한 음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 13-14세기 훠궈와 같은 음식이 중국 원(元)에서 고려에 유입되면서 식기인

신선로까지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이 중 확정된 설은 없다.⁴

현재 열구자탕의 음식명은 식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신선로와 열구자탕이 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구자탕 또는 탕을 담는 식기의 명칭인 신선로로 음식명이 기록되어 있다.⁵ 따라서 현재와 같은 열구자탕의 명칭 병용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선로의 구조와 형태는 조리도구와 식기의 성격이 공존하는 기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현재 사용하는 신선로와 남아있는 유물 대부분 뚜껑, 음식을 담는 몸체, 몸체를 받치는 나팔 통형의 굽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 안에는 원통형 관 형태의 화구 기둥이 있는데 동일한 통형인 굽다리의 공간과 열이 통하도록 개방된 구조이다. 열구자탕은 재료를 익히기 위해 식기를 가열하고, 완성된 음식이 식지 않게 하려고 탕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식기에 열을 가해 데운다. 이를 위해 굽다리 안쪽에 나무를 탄화시켜 만든 연료인 백탄(白炭)과 같은 가열체를 넣는다. 가열체에서 발생한 열기는 굽다리에서 화구를 거쳐 그릇 전체에 전도된다. 신선로의 형태와 구조는 이러한 열구자탕의 조리 및 섭취 특성을 반영해 점진적 개량을 거쳐 최적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박은희·강병길, 「신선로 원형으로서 유물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권 5호(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217쪽. 한편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1946)에서 열구자탕이 입을 즐겁게 하는 탕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 신선로가 중국의 휘궈르에서 온 것이라 했다. 다만 중국은 이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건마는 신선로라는 문자만은 보이지 않으니 이름은 아마 조선에서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진경환, 『조선의 잡지: 18-19세기 조선 양반의 취향』(소소의 책, 2018), 371쪽 각주 38.

5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Ⅲ: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2007), 253쪽. “…… 都俗熾炭於爐中置煎鐵炙牛肉調油醬鷄卵葱蒜番椒屑圍爐唔之稱煖爐會 自是月為禦寒之時食卽古之煖暖會也 又以牛豬肉雜菁蒿葷菜鷄卵作醬湯有悅口子神仙爐之稱 按歲時雜記京人十月朔沃酒乃炙臠肉於爐中團坐飲唔謂之煖爐……”

표1-분리형, 일체형 신선로의 구조와 구성품

분리형 신선로(식기)	일체형 축소 신선로(완상용)
 <p>37563</p> <p>화구 굽다리 몸체</p> <p>별관146.</p>	 <p>화구 몸체 굽다리 뚜껑</p>
<p>상) <유제신선로>, 20세기초, 국립중앙박물관</p> <p>하) <은제신선로>, 20세기초, 부품분리현전. 국립중앙박물관</p>	<p><은제신선로>, 20세기 초, 순은제 명문 있음. 흥선대원군묘 출토. 높이 3.8cm, 서울역사박물관</p>

신선로는 이 구성품의 탈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과 일체형 모두 공통적으로 뚜껑은 분리된다. 신선로는 조리과정에서 재료와 육수를 끓이고, 섭취할 때 모든 재료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인 가열체를 담고 열을 그릇 전체에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화구가 신선로의 기능에서 매우 중요했다. 현재 주로 장식, 기념용으로 알려진 일체형 중 실용기로 사용 가능했던 신선로인지 단순 완상용으로만 제작된 것인지 여부도 여기에서 결정된다. 일제강점기 장식용으로 신선로의 형태 특징만 살려 제작된 3-7cm 높이의 축소형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 이를 제외한 높이 10cm 이상, 그릇 너비 지름 13-25cm 내외의 일체형 신선로 중 화구가 뚫려 가열체를 넣을 수 있고, 화구와 그릇이 연결되어있으며, 그릇과 연결된 통형의 화구 기둥이

뚫려있다면 신선로 전체에 열전도가 가능한 신선로로, 일체형이라 하더라도 본래 식기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⁶ 결국 일체형 중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선로의 용도는 사용자의 사용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소형 신선로를 제외한 일체형 신선로를 모두 장식, 완상용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전하는 신선로 유물 중 유동(鎰銅), 황동(黃銅) 백동(白銅) 등 동합금으로 제작된 신선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이는 동이 지닌 재료적 특성과 형태 제작 기술의 특성이 반영된 소비 결과라고 생각된다. 동제 신선로는 보통 주조기법으로 각 부품을 제작한 후 면을 다듬는 가질을 거쳐 형태를 완성한다. 따라서 기물 벽의 두께가 균일한 편이다. 균일한 두께를 가진 기물에 열을 가하면, 기물 면에 열이 비교적 일정하게 전도된다. 여기에 동은 은제 신선로에 비해 강도가 높아 내구성이 좋다.

2. 조선시대 신선로의 용례와 인식 형성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층에서 두루 애호된 열구자탕은 여러 문헌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담는 그릇인 신선로의 구체적 용례를 분석하는 단서가 된다. 우선 왕실은 현전하는 의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조 41년(1765)에 간행된 『수작의궤(受爵儀軌)』(1765)⁷를 시작으로 『자경전진작정례의궤(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⁸ 등 상당히 많은 수의 의궤에서 확인된

6 현전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분리형, 일체형 신선로는 보통 높이 13-15cm 이상, 지름 15-20cm 내외인 유물이 많다. 이 중 축소형처럼 신선로의 형태만 갖춘 것도 있고, 모든 구성품의 형식을 갖추고 화구가 개방되어 있어 실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다.

7 『受爵儀軌』(1765) 卷2, 二房膳錄. “…… 再味悅口子湯一器……”

8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卷2, 饋品 附綵花. “…… 慢口資湯二器, 生雉陳鷄各二首秀魚

다. 열구자탕(悅口子, 悅口資)이 차려진 음식 목록에서 신선로는 보통 “열구자탕 한 그릇(悅口子湯一器)” 식으로 음식을 담은 탕기(湯器)로 기록되었다. 의례에서 왕, 왕비, 세자 등 왕실 최상위층에게 열구자탕을 담아 올린 내용으로 왕실에서의 신선로 사용계층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기 의례기록 중 『진연의궤(進宴儀軌)』(1901)⁹, 『순종순종비가례도감의궤(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1906)¹⁰에서도 유사한 용례가 확인된다. 대한제국기 진연은 1892년(고종 29)에 시행된 진찬 예제를 따르고 있어¹¹, 신선로의 용도와 사용자의 신분은 이전 기록과 같다.

민간 사회에서 열구자탕은 사대부와 부호들을 중심으로 애호된 고급 음식이었다. 우선 왕실과 동일하게 서원이나 가문의 제례와 의례에 사용되었다. 사례로 1598년 병산서원 제물의식을 기록한 문서에는 의식에 차려진 음식과 사용된 기물 목록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신선로가 포함되어 있다.¹² 이 외에도 열구자탕에 대한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신선로의 구체적인 사용상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10월의 기타 행사 중

二尾昆者巽猪胎猪內心肉各二部牛腰骨四部牛內心肉一部
豚半部熟全鰻四箇 胡椒末二夕
青
朶二箇實柏子二合
朶末良醬眞油醞水各一升
實桔黃十箇
水芹生葱各二握
鷄卵二十箇實荏子
六合生薑四錢……”

9 『進宴儀軌』(1901) 卷3, 待事 排設房. “…… 悅口子湯一器, 牛內心肉半部昆者巽背骨各一部
豚腑化各十分一秀魚半半尾全鰻一箇海蔘五箇
朶古眞末良醬各三合
菁根五箇水芹五手生葱
五本鷄卵二十箇實銀杏實柏子實胡桃各一合
胡椒末五夕
眞油朶末各五合
實荏子末二合……”
『진연의궤』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신선로의 사용이 확인된다.

10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1906) 卷1, 典膳司. “皇帝果盤一床九器, 高一尺……悅口子湯一器, 內心肉半部 大腸一部 昆子巽一箇腑化半部 豚領十分一 海蔘五箇
鷄卵五箇
菁根二箇 水芹五丹 木朶黃花各一兩 胡椒末一錢
荏子末二夕 背骨一部 真油眞末各二合
銀杏一合 實柏子朶古胡桃各五夕
良醬二合……”

11 정희정,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한국미술사학회, 2015), 68쪽.

12 〈1598-1674년 병산서원 제물의식〉 중 1598년. 『고문서집성20-병산서원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669-673쪽. “…… 果器 餅古里
樺古里 酒注 神仙爐 茶食爐口
刀版 湯爐口 米蔬古里……”

서울의 풍속으로 사대부 층의 난로회를 소개했다. 난로회에서 즐긴 열구자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풍속에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석쇠를 올려놓은 다음 쇠고기를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후춧가루 등으로 양념해 구워먹는데, 이것을 난로회(煖爐會)라고 한다. 숯불구이는 추위를 막는 시절 음식으로 이 달부터 볼 수 있으며, 난로회는 곧 옛날의 난난회(煖暖會)와 같은 것이다.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오이, 채소, 나물 등 푸성귀와 계란을 섞어 장국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열구자탕(悅口子湯), 또는 신선로(神仙爐)라고 부른다.¹³

25가지가 넘는 왕실의 재료만큼은 아니지만¹⁴, 난로회를 위해 차린 신선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뼈, 생선, 각종 야채 등 갖은 재료들을 넣어 즐기는 고급 음식이었다. 조선 후기 문신 윤기(尹愬: 1741-1826)의 『무명자집(無名子集)』의 기록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10월 초하루 부유한 집안에서 신선로를 차리고 난로회를 즐긴다는 내용으로 『동국세시기』와 동일한 사용 계층과 용례가 확인된다.¹⁵ 이 외에 여러 문집에서 집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이나 차와 함께 열구자탕을 대접한 기록이 있다.¹⁶ 종합해보면 민간의 신선로는 사대부와 부호층을 중심으로 향유했던 고가의 금속재료로 만든 식기였으며, 제례, 일상의 식사, 지인과의 모임, 난로회와 같은 회합 등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13 국립민속박물관(2007), 위의 책, 251쪽.

14 왕실의 열구자탕 재료는 각주 8, 9, 10, 11 참조.

15 『無名子集』詩3冊, 十月朔記故事. “十月丁初吉 舊風亦可觀 禮家拜墳謹 富戶煖爐團 蒸裹成山俗 煙糟萃楚律 佳辰應最是 秋後未冬寒.”

16 『鵝溪遺稿』, 卷6, 銘類, 崔處士碣銘. “..... 嘗坐一室. 左右圖書. 置神仙爐煮酒茶.”.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조선 후기 문집에서 여럿 확인된다.

신선로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대상물 중 하나이기도 했다.¹⁷

한편 신선로는 식기 외에 일본과의 외교에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전한 예물과 통신사의 일본 체류를 도와준 현지 일본인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¹⁸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신선로의 성격과 다르다. 조선은 청과 일본 양국을 중심으로 외교, 무역관계를 진행했고, 방문하는 국가의 현지인에게 통역이나 안내 등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신선로를 선물한 대상이 유독 일본인에게 집중된 것은 흥미롭다. 이 때 신선로는 조선에서 가져온 선물로 받는 입장에서는 조선인 또는 조선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기념품적 성격에 가깝다. 후술할 20세기 초 대한제국 황실의 기념 하사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비유형이다.

더불어 18세기 말에 편찬되어 메이지시대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어 학습을 위해 폭넓게 사용한 회화책인 『교린수지(交隣須知)』 예문에는 신선로가 등장한다. 이는 근대 이전 신선로가 이미 일본인에게 조선의 대표적인 음식과 식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⁹ 이러한 사례들

17 여러 사례가 있는데 1562년 손경의 부인인 강씨가 세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준 상속문서인 분급문기를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 기록에는 2남 광호에게 여러 유기 물품과 함께 유기 신선로를 물려줬음이 확인된다. <1562년 孫噲 妻康氏分給文記>, 『고문서집성32: 경주 경주손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365-367쪽. “…… 二男光暉衿 鍮盆俱蓋一神仙爐一 鍮仇只一掛燈檠一 二瓶入鍮■盆一……”

18 1746년 조선통신사 일행은 자신들을 도와준 일본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물목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했는데, 여기에 신선로가 포함되어 있다. 『通信使贍錄』 卷9, 1746년 7월 26일자(丙寅七月二十六日). “…… 大使 赤銅大累參盤盤一部 赤銅中累參盤盤一部 簠子累合大硯匣一備 溜漆文匣 硯一備 別鼻眼鏡二掛 神仙爐一箇 彩畫中四方鏡一 面院玄木房小刀四柄 大形雨傘三柄 計…….” 1748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기록(『通信使贍錄』 卷10)에도 동일한 목적의 사용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1617년(광해군9) 『海行摺載』의 「扶桑錄」 등 여러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당국자에게 주는 경우도 소수 있지만 주로 통역을 도와준 일본인 역관 등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19 『交隣須知』3冊, 交隣須知卷3, 盛器, 神仙爐. “神仙爐 신선로는 산에 가서 술 데여 먹기요 흐니라.”

은 신선로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을 상징하는 토산품으로서 급부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다. 오히려 조선시대 형성된 기념품적 이미지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일제강점기 토산물로 활용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예로 일제강점기 신선로와 동일한 성격으로 소비되었던 철제입사공예품을 들 수 있다. 18-20세기 초 조선의 외교물품으로 사용되고 부산 동래 등지에서 담배합과 같은 연초도구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소비가 성행했다. 근대 신선로를 포함한 토산품의 이미지 형성은 이전 시기인 조선시대 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추후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III. 일제강점기 신선로의 제작 형태와 양상

19세기 말-20세기 초 신선로가 본연의 식기 용도를 계승하고, 새로운 용도가 더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중 제작 측면에서 보면 수공예로만 전개되었던 공예품 제작에 19세기 초 물리적 구동체인 엔진이 들어가는 기계가 새로운 제작 주체로 본격 대두된다. 이는 기존 수공예로 한정되었던 공예의 범주가 기계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²⁰

변화는 기존 질서의 재편과 공예와 관련 환경 및 요소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었다. 여기에는 과거에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었던 수공예품과 기계 생산품과의 구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재 수공예(手工藝)라 부르는 근대 이전 국가 기간산업의 주된 제작 수단은 생활, 예술, 전승, 창작공예 등으로

20 최공호, 「공예(工藝), 모던의 선택과 문명적 성찰: 용어 사용 이후의 위기와 어젠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28-29쪽.

역할이 재편되었다.²¹ 분화 초기인 20세기 초 대한제국기 자료를 살펴보면 수공예를 수예(手藝)²², 수조물품(手造物品)²³ 등으로, 공방을 수조공장(手造工場)²⁴, 제작소(製作所) 등으로 칭해 기계제작, 기계생산품과 구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한성미술품제작소 명칭과 같이 소장과 감상의 역할을 지닌 미술품(美術品) 개념이 수공예에 더해졌다.²⁵

모든 공예품이 근대기 상황과 합치되어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예품 기종별로 세부 특징과 용도가 분명했기에 변화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신선로는 수공예를 중심으로 기존 역할에 새로운 역할이 더해진 기물 중 하나였다. 특히 Ⅱ장에서 본 조선시대 형성된 조선을 상징하는 토산, 기념적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주권국이었던 조선과 식민지였던 일제강점기 조선과는 같은 상징이라 하더라도 내재된 인식 차이가 분명했다. 이 시기 신선로의 제작상과 기존 소재에 새로운

21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논의는 아니었다. 기계를 도입해 기물 생산에 사용했던 모든 국가들이 겪는 일이었고, 추후 수공예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는 국가의 정책 수립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중엽 기계 도입 이후 수공예와 공존할 방향을 바로 모색했고, 비슷한 시기 영국은 수공예기술이 일정기간 동안 기성품에 잠식되어 일부 멸실된 후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공존 방향을 찾아갔다. 일본의 수공예 정책은 프랑스와 영국의 제도를 혼합해 받아들였다.

22 『대한매일신보』, 1905년 “수예로써 생계를 도모코자 할세” 등.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한국근대공예사론』(미술문화, 2008), 57쪽에서 재인용.

23 『황성신문』, 1909년 3월 10일자. “韓美興業株式會社에서 我國手造物品을 美國 시아틀 大博覽會에 出品……”

24 『황성신문』, 1909년 3월 10일자. “…… 高麗青磁十餘種과 新製造鎔器各種은 美洲人의 所用으로 我國手造工場에게 見本을 紿予하야……”

25 각주 22, 23의 기사에는 고려청자와 새로 제작하는 유기들을 미국인들이 소장하는 미술품으로 제작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그들이 소장해 감상 및 보관한다는 의미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미술품, 현재의 미술품의 개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황성신문』1909년 3월 10일자. “我國手造工場에게 見本을 紿予하야 美術品으로 製造 하였더라.……”

소재가 더해진 문양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물을 둘러싼 변화 양상을 일정 부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제작과 유통

이 시기 신선로는 과거와 같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주문제작과 소비자의 소비경향과 판매수치를 예측해 판매 이전 미리 제작해 놓는 기성품 생산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저술서에는 시전의 상점에 진열된 신선로를 비롯한 금속공예 품을 구입하거나, 공방 내에서 이를 제작하고 있는 장인들을 구경했다는 기록들이 있다.²⁶ 이는 주문제작, 기성품으로 이원화된 체제가 조선에서 이미 통용된 방식임을 보여준다.

근대기 신선로의 제작, 유통 주체는 관영 미술품제작소, 조선 후기 제작문화를 계승한 각 지역의 장인과 공장²⁷, 일제강점기 새로 생긴 민간 상점의 위탁 제작과 관련 공장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현전하는 유물에서 확인되는 제작소 및 상점 중 대표적인 곳을 중심으로 신선로의 제작, 유통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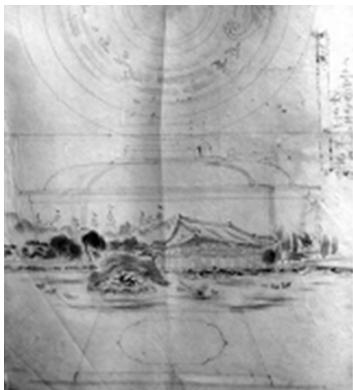
1) 미술품제작소

경술국치(1910) 후 이왕직(李王職)으로 격하된 왕실에서 소비하는 공예품의 제작은 주로 한성미술품제작소의 후신인 이왕직미술품제작소(李王職美術品製作所)에서 담당했다. 1908년에서 1913년까지 운영된 한성미술품제작

²⁶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59쪽.

²⁷ 김세린(2019), 위의 논문, 253-255쪽. 도자전은 원래 각종 금속제 장신구를 취급하던 곳이었으나, 이후 금속제 애호물품과 생활물품까지 판매목록이 확대되었다.

소는 궁내부에서 어용(御用)으로 설립했다.²⁸ 조선 고유의 미술품 제작과 일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예품 제작에 목적을 두었는데, 이는 왕실기물 제작소인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도 미술품을 판매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던 제작소였음을 의미한다.²⁹ 이왕직미술품제작소도 설립 초기에는 한성미술품제작소를 승계해 조선 고유의 공예미술을 발휘하고, 영리를 떠나 조선 공예 미술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기존 한성미술품제작소와 동일하게 왕실공예품 제작과 상업적 영리활동을 병행했다.³⁰ 1920년대 초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일본인이 지분을 인수한



도1-이왕직미술품제작소
 〈산수누각문신선로도안〉, 1910년대.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미술문화, 2008),
 276쪽.



도2-〈신선로〉, 높이 15.4cm, 너비
 15.4cm, 1910년대. 국립고궁박물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제작. 도1의 도안과 문양은
 다르지만 화구 등 신선로의 전체 형태 유사.

- 28 이 기사는 경술국치(1910) 이후에 쓰여진 기사인데, 한성미술품제작소가 궁내부에 서 어용으로 설립했음을 밝히고 있다.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자. “前宮內府御用으로 設立한 漢城美術品製作工場을 觀覽한 았는 듯 | 同場은 金工, 染織, 製墨 三部에 分하고…….”
- 29 정지희,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 및 변천과정 연구」, 『미술사학연구』 303(한국미술사학회, 2019), 235~236쪽.
- 30 서지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2015), 15쪽.

후 운영주체로 나선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는 본격적으로 민간인 대상 판매를 중심으로 제작을 전개했다. 미술품제작소 신선로는 이러한 운영 주체 및 취지 변화 흐름에 따라 제작, 유통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로는 한성미술품제작소 시기부터 제작되었다. 현전하는 1910년대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도안 중에는 산수문과 누각을 문양소재로 사용한 신선로 도안이 전해진다(도1). 도안의 존재는 미술품제작소의 신선로 제작에 정해진 일정 형식과 기준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술품제작소 내에서 신선로 제작은 금공부(金工部)에서 담당했다. 한성미술품제작소로 운영되던 1911년 기사에 금공부는 금은기를 다루는 금은세공(金銀細工)공장과 동, 철제 기물 제작 및 도금을 담당하는 철공도금(鐵工鍍金) 공장을 나누어 운영했던 것이 파악된다. 이들은 궁내부에서 관리하는 왕실 어용품도 제작했다.³¹ 왕실은 은제 신선로를 위주로 사용했기에 금공부에서 제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13년 1월에서 12월까지 덕수궁 찬시실에서 작성한 『덕수궁찬시실일기』(德壽宮贊侍室日記)(1913)에는 고종이 사용한 기물의 출납 목록이 전해진다. 여기에는 고종 진헌물품(進獻物品) 중 하나로 은제신선로 6구가 포함되어 있다.³² 한편으로는 유물을 통해 유제 신선로의 사용도 확인된다. 의궤에는 열구자탕을 담는 식기로 기록되어 정확한 재질을 파악할 수 없으나,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선궁명유제신선로〉(1903-1911, 표2)는 왕실에서도 은제신선로 뿐 아니라 유제신선로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31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자. “…… 金工部에서 는 金銀細工, 鐵工鍍金의 各工場이 有하고 金工部에서 는 太半宮內府御用의 花瓶, 神仙爐等을 製作하고 金銀製는 特別히 巧妙하고……”

32 『德壽宮贊侍室日記』 9冊, 大正2년(1913) 9월 7일 9시 15분. “九時五十分 御入 診次 典醫 金瀅培 贊侍 李 聖默帶同入出 本日 進獻物品如左/ 銀盤床 一具 銀神仙爐 六坐 銀飯餅器 一雙 銀茶鍾 一雙……”

순현황귀비 엄씨(純獻皇貴妃 嚴氏: 1854-1911)의 처소인 경선궁(慶善宮)에서 사용된 신선로인 이 유물은 신선로 내부에 사용흔이 있는 일체형 신선로이다. II-1장에서 언급한 일체형 신선로가 완상용 뿐 아니라 실사용에서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신선로 뚜껑과 굽다리 아래부분에 '경선궁'이라 선각되어 있어 용처가 확인된다. 순현황귀비는 1903년 황귀비로 책봉되고 경선(慶善)이라는 궁호를 받으면서 경선궁에 1911년까지 살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1911년 이전에 제작되었고, 이 기사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덕수궁찬시실일기』와 〈경선궁명 유제신선로〉를 종합해보면 황실의 일상기로 은제신선로와 유제신선로가 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914년 순종이 조선에 방문한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彥王: 1887-1990)와 아사카 야스히코(朝香宮鳩彥王: 1887-1981)에게 선물한 기념 품 토산물 물목에도 은제신선로가 있다.³⁴ 이 신선로들 역시 이왕직미술품 제작소에서 궁내부 관리 하에 제작한 어용 은제신선로 중 하나였을 것으로

표2-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경선궁명 유제신선로〉의 구조와 명문³³

		
전체(높이 14cm, 최대폭 20cm)	내부(사용흔 있음)	몸체와 굽다리 접합부 (일체형) / 경선궁 명문

33 사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34 『純宗實錄附錄』 卷5, 순종7년(1914) 6월 18일. “兩宮, 各賜贈朝香宮, 東久邇宮兩殿下土產物品. 王殿下, 銀製神仙爐各一組二箇入, 太王殿下周鑾盞尊式銀製花瓶各一箇, 不老緞各二疋, 花欄纖各二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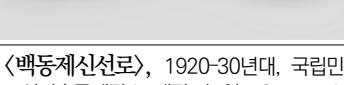
추정된다. 이는 왕실용 신선로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공적 용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선 1911년 기사에는 금공부가 조선에서 전승된 고유의 미술의장을 유지하며, 재료 개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신선로의 제작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기존에는 은으로만 제작했던 왕실용 신선로를 유동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에 은도금을 하는 것으로 변화한 제작법이 확인된다. 이는 재료와 제작법을 변경해 구리, 주석 동합금재인 유동으로 형태를 만들고 표면에 은도금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작 단가를 낮추고, 동시에 표면 은도금을 통한 어용품 형식은 갖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왕실에서 이런 유동제 신선로 사용은 그 이전에도 이미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내용의 의도는 <경선궁명유제신선로>와 같이 이미 일상에서 황실이 열구자탕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실용품으로 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어용품은 물론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이러한 개량이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는 이렇게 제작한 신선로의 형태가 양호하며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평가하며 실제 판매 단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³⁵ 제작 단가가 낮춰졌기에 가격 역시 기사의 내용대로 당연히 하락하는데, 이는 민간 유통용 신선로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이 시기 어용품과 별개로 다용도로 사용하는 동합금 신선로를 금공부에서 제작하고 있었는데, 신선로를 포함한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금속공예품 제작이 앞서 언급한 제작소 운영 취지에 따라 수립,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1920년대 초 이왕직미술품제작소를 인수한 주식회사 조선미술품 제작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광고에서는 이왕직의 후신임을

35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자. “…… 金工品이나 織物類나 皆朝鮮固有의 美術意匠을 保有할 趣旨로 假令製造法을 改良할지라도 意匠은 總히 朝鮮式이라 近來에 眞鑄製에 銀鍍金을 施한……”

표3-조선미술품제작소 광고와 신선로

		
<p>이왕직의 후신이라 언급한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 광고. 《조선신문》, 1931년 11월 27일자.</p>	<p>〈백동제신선로〉, 1920-3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 제작. 높이 18.1cm, 너비 22.2cm 뚜껑 윗면에 '神仙爐', '京城 朝鮮美術品製作所造 京城太平通'가 인쇄된 종이가 부착되어 있어 제작처의 위치까지 확인됨.</p>	

강조한다.³⁶ 신선로 유물 중 조선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것도 전해지고 있어 이왕직미술품제작소와 마찬가지로 민간 판매용 신선로 제작이 확인된다(표3).

2) 상점과 공장

일제강점기 신선로의 주요 제작처 중에는 공장과 상점이 있다. 미술품제작소처럼 제작과 유통을 일원화한 곳도 있고, 상점이 판매할 신선로를 공장에 위탁 제작한 곳도 있다. 현전하는 문헌과 유물로 금속제 신선로 제작과 유통이 확인되는 상점과 공장은 경성 해시상회(海市商會), 경성 미츠코시(京城 三越), 화신상회(和信商會), 신행상회(信行商會)³⁷ 등이 있다. 그리고 유물을 통해 현재 전통 유기제작 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경기도

36 조선미술품제작소는 나전칠기(螺鈿漆器), 금은세공품(金銀細工品), 청동주물(青銅鑄物), 필묵(筆墨), 석세공품(石細工品), 목제품(木貝品) 등을 제작했다.

37 신행상회는 금은세공장으로 1910년대 경성에 있었던 금은세공상회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신태화의 기술과 김연학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행상회는 신태화가 1918년 화신상회를 설립하기 전까지 존속했던 곳이다. 1910년대 신행상회 광고의 판매 물목에는 신선로가 포함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신행명이화문십장생문신선로〉(20세기 전반)가 남아 있다.

안성과 대구 등 지역에서의 제작, 판매도 확인된다. 종합해보면 신선로의 제작과 유통은 조선의 전통 기술을 전수받은 장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제작과 유통, 근대 도입된 상점의 공장 위탁 제작, 공장의 직접 제작과 판매로 유형이 파악된다. 유물로 확인되는 주요 회사의 신선로 제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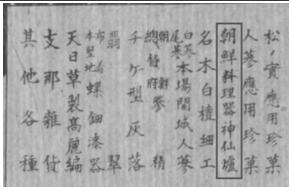
경성 해시상회(이하 해시상회)의 신선로는 주로 동합금제 신선로가 확인된다. 해시상회는 우미이 벤조(海井辨藏: 1875-?)가 1906년에 개업한 조선 및 중국 토산품 판매 상점이다.³⁸ 1912년 경성에 해시상회 본점을 설립하고 조선의 도자기, 나전칠기, 금속기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했다. 『조선은행회 사기요(朝鮮銀行會社要錄)』(1925)에는 1923년 해시상회가 주식회사 해시상회로 사명과 운영체계를 변경하고 일본 도쿄에 본사를 설립했으며, 창립자 우미이 벤조의 이사 등록이 확인된다. 사명과 운영체계 변경 후에는 이와미 야 쇼오베(岩宮庄兵衛)가 경성 지점장으로 해시상회를 운영했다.³⁹ 해시상회의 신문 광고는 현재 1935년까지 확인되는데 모든 광고에는 조선의 토산물(みやげ)를 판매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해시상회는 최소 1906년부터 광고가 확인되는 1935년까지 조선의 토산물을 취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해시상회 광고지〉(1910-1920년대)에서는 해시상회에서 취급한 토산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광고지는 일본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 제작되었다. 광고지에는 조선의 토산품(朝鮮 みやげや) 판매와 취급 물품 종류를 적어놓았다. 여기에는 “조선요리기신선로(朝鮮料理器神仙爐)”도 있다. 현전하는 해시상회 판매 신선로 유물은 이를 뒷받침한

38 『大京城都市大觀』(朝鮮新聞社, 1937), 食料品店 / 部.

39 『大京城都市大觀』(朝鮮新聞社, 1937)에도 이와나베 쇼오베가 경영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923년부터 1937년 이후까지 이와나베 쇼오베가 해시상회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표4- 1910-1920년대 해시상회 광고지와 판매된 신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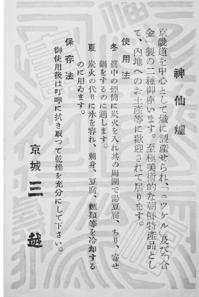
		
<해시상회 광고지>, 1910-192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해시상회 광고지> 내 판매물목 중 신선로를 적은 부분.	<신선로>, 1910-192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높이 13.8cm. 상자 하단에 둑서로 '京城海市商會製'가 적혀있고 직인이 찍혀있음.

다(표4). 해시상회는 판매 물품들을 공장에 위탁 제작했다. 도자기는 한양고려소(漢陽高麗燒), 칠기는 고려휴(高麗髹)에서의 제작이 확인된다. 반면 금속공예품 제작소는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위탁 제작소의 업체명을 알 수 없다.⁴⁰ 하지만 취급한 공예품 대부분을 위탁 제작했던 것으로 볼 때 신선로 역시 동일한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츠코시 경성지점(이하 미츠코시)은 1929년 세워진 국내 최초의 백화점이다. 미츠코시는 신선로를 포함한 다양한 조선의 물품을 취급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미츠코시 <신선로>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신선로에 대한 안내서가 동봉되어 있다(표5). 이 안내서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생산된 합금 제품으로 ‘조선의 미술적인 성격’을 반영한 특산품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미츠코시에서 직접 제작했다는 내용은 없다. 백화점이었던 미츠코시의 특성상 위탁 제작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경기도를 언급했

40 《부산일보》, 1918년 11월 7일자. 「朝鮮の高美術を復興せる海市商會」 기사에는 해시상회의 제품을 위탁 제작하는 대표적인 공방과 공방의 제작기술 및 공진회 등의 수상내용을 소개했다. 같은 기사에서 금속공예품은 판매한다고만 되어 있어 직접 제작인지 위탁제작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해시상회 관련 다른 기록들도 마찬가지여서 해시공방에서 판매한 금속공예품의 제작사에 대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표5-미츠코시 경성 판매 신선로와 신선로 제품 안내서

	
〈신선로〉, 미츠코시 경성지점 판매, 1930년대, 높이 16.2cm, 너비 19cm. 국립민속박물관	〈신선로〉 상자 안에 동봉된 신선로 안내서. 1930년대, 국립민속박물관

던 것과 당시 유기제작 및 유통상황을 고려하면 안성유기일 가능성이 있다. 유기로 유명했던 경기도 안성에서는 1928-1929년 전후로 유기 공방을 운영하는 유기 점주와 유기장(鎰器匠), 시장(匙匠) 등이 모여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를 창설하고 주물 유기를 전국적으로 판매했다. 구리, 비철금속 합금 등 다양한 재질로 유기를 제작했으며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를 병행했다.⁴¹ 위의 안내서와 당시 안성의 유기 생산 및 판매상을 고려해 추후 미츠코시와 안성유기주식회사와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화신상회는 신행상회와 함께 은제 신선로 유물이 현전한다. 화신상회는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혼수품인 〈은제산수문신선로〉(20세기 전반, 도3)의 제작사이기도 하다. 화신상회는 1918년 신태화가 설립한 금은 세공회사로 제작과 유통을 동시에 진행한 공장이다. 1921년 개최된 생산품 품평회와 1923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부업품공진회 등에서 수상할 만큼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다. 1931년 박홍식이 인수해 주식회사 화신상회

41 임근혜, 『안성맞춤유기(鎰器) 생산전통의 구성과 지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4-117쪽.



도3-〈은제산수문신선로〉, 20세기 전반,
화신상회 제작,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높이 11.2cm, 너비 15.6cm

소로 변경되어 상업화된 시기였다. 따라서 왕실 혼수용 신선로지만 이미 조선미술품제작소의 어용품제작소 위치가 무의미해진 시기였기에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세공회사였던 화신상회에 의뢰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⁴³

로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에도 신태화가 제작에 계속 간여하였다. 때문에 제작품의 품질과 제작기술의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⁴² 덕혜옹주가 소다 케유키(宗武志: 1908-1985)와 결혼한 1931년에는 이미 어용품을 생산하던 이왕직미술품제작소가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

2. 전통적 문양소재 계승과 새로운 문양소재의 도입

이 시기 신선로는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계승된 형태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조선의 실용기와 마찬가지로 각 구성 부품을 주물로 제작 후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뚜껑과 몸체에는 다양한 문양소재들이 시문되었다. 소재는 조선에서 전승된 것과 일제강점기 새로 적용된 것이 공존했다. 이러한

42 정지희, 『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101-102쪽.

43 같은 박물관에 소장된 덕혜옹주의 혼수품 중 하나인 경성이왕가미술공장조(京城李王家美術工場造) 명 은제소꿉의 경우 미명 마크와 명문으로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시절에 제작된 기물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화신명 신선로와 동시기에 제작된 것은 아니다.

양상은 신선로의 새로운 소비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신선로의 주요 문양소재 중 조선에서 전승된 소재인 산수문과 당초문, 일제강점기 새로 적용된 고건축문을 중심으로 변모한 신선로의 성격에 따른 문양 소재의 적용과 제작, 시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수문과 당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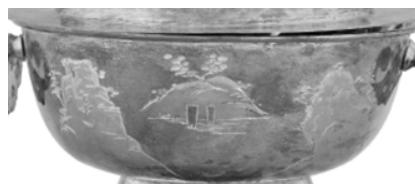
산수문(山水紋)은 화당초문(花唐草紋)과 함께 은제신선로를 중심으로 확 인되는 문양소재이며, 조선시대 소상팔경화와 유사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산수문은 도1로 제시한 1910년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왕직미술품제작소 도안집에 수록된 신선로 문양이기도 하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도안 문양 소재는 산수누각문이기에 건물을 중심으로 강과 산 등 자연물이 배치되어있다. 하지만 뚜껑에 배치된 산수문과 신선로 굽다리 개광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산수화 구도와 소재를 근간으로 한 문양 형식이 근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회화풍 산수문은 금속공예뿐 아니라 동시기 나전칠기, 도자기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 소재이다.⁴⁴

문양은 선각(線刻)기법으로 전체적인 형태와 요소를 선으로 아로새겼다. 은이 금속재료 중 강도와 물성이 연한 편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에 전체적으로 문양이 간략화, 도식화되었다. 선각의 세부기법인 직선조(直線彫)로 전체적인 문양 윤곽을 표현했다.

⁴⁴ 조선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누각문 화병>(아모레퍼시픽미술관소장)에서는 경복궁의 경회루를 표현해 전체적인 문양 구조가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산수누각문 도안과 유사하다. 또, 전성규가 제작해 1937년 14회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 출품했던 <산수문나전궤>(개인소장)도 신선로와 같은 회화풍 산수문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대기 여러 유물과 도록에서 회화풍 산수문이 문양으로 사용된 공예품이 확인된다.



도4-〈은제산수문신선로〉 산수문 부분,
20세기 전반, 국립중앙박물관



도5-〈은제산수문신선로〉 산수문 부분,
20세기 전반,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

윤곽선 안의 선은 시문시 조각도로 각을 조정해 선의 너비와 깊이를 달리해 산수화에서의 수목 농담과 유사한 효과를 묘사했다. 농담은 각으로 표현하고자 한 부분을 시문할 때 조각도를 약간 뉘어 비스듬하게 면을 파내거나, 직선을 반복적으로 여백 없이 쳐내는 수법을 병용했다. 산의 형태와 같은 곡선은 유려하게 표현하기 위해 선을 반복적으로 끊어 쳐가면서

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전체적으로 실선으로 완성된 곡선을 구현했다. 은이 가진 물성을 고려해 형태를 간략화하면서도 산수문이 지닌 특징을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도6, 도7).



도6-〈백동제신선로〉,
20세기 초,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
박물관.
높이 15.2cm, 너비 18.2cm
뚜껑 남대문 문양, 몸체 당초문



도7-〈신선로〉, 일제강점기,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높이 18.1cm, 너비 22.2cm
뚜껑과 몸체 당초문

신선로의 당초문(唐草紋) 형태는 조선 후기 도자기와 동, 철제 자물쇠, 담배합 등에서 기반한 형태이다. 꽃이

나 문자, 열매와 결합해 중심문양으로 사용한 것은 동제신선로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기물의 제작 및 문양 시문기법은 동제신선로에서 주로 확인되는 고건축문과 동일하다. 기법에 대해서는 변화한 제작 수법과 관련이 깊은 고건축문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당초문과 결합된 소재 대부분은 조선시대 공예품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소재들로 식물문, 문자문, 태극과 팔괘문 등이 있다. 여기에 이화문, 무궁화문과 같은 새로운 소재들이 더해졌다. 몸체에는 다른 문양소재와 결합한 당초문을 시문하고 뚜껑에 고건축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당초문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문양 구도와 배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전승된 문양 소재 또는 근대기 새로 채택된 고건축문 같은 소재와의 결합이 동시에 확인된다. 다른 문양소재와 유연하게 결합되었던 당초문 고유의 특징이 반영된 양상이라 볼 수 있다(도6, 도7).

2) 고건축문(高建築紋)

1910년대부터 유동제 신선로의 대외 수출이 활성화되었고⁴⁵, 1920-1930년대에는 “화학작용을 통한 미술적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유기 제작 기술 개량이 활성화되었다.⁴⁶ 실제 이 시기 안성유기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방짜보다는 주물기법 위주로 제품을 생산했으며 기념

⁴⁵ 《권업신문》, 1913년 3월 16일자. “요사이에 한국서 만드는 의통이 구미 각국으로 비상히 수출되는데 그전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는 부채와 신선로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사갔거니와 의통 많이 삼은 실로 요사이에 성한 지라. [...] 구미 각국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사랑함에 제一로 양복 넣어 두는 데와 방치례하는데 귀한 보물로 삽이라더라.”

⁴⁶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 해마다 생산액이 증가 (...) 각국에 수출 (...) 종류이상 가정에선 튼튼한 유기의 특징상 많이 쓰이고 있어 해마다 그 수요액은 증가하고, 옛날에는 유기 위에 글이나 그림을 조각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화학작용을 응용해 아무리 어려운 그림이나 글씨도 붓과 같이 그릴 수 있고 용이하게 미술적으로 그려서 만들게 되었으므로 전조선 각 지방의 각 단체나 개인의 기념품으로 유기를 많이 쓰고 있다.....” 윤채원(2019), 앞의 논문, 42-43쪽에서 재인용.

품, 일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선택했다. 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의 세부 제작기법이나 기벽 두께 등 상황에 따라 주석, 아연 함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등 합금술 개량이 전개되었다.⁴⁷ “미술적으로 정미한 모양과 실용적으로 견고한 제품의 제작 판매”⁴⁸라는 문구로 내구성과 문양의 정교함을 갖춘 유기 판매를 홍보한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의 광고와 관련 기사는 당시 이러한 합금, 형태성형, 문양 시문기술의 개량이 진행되었던 상황을 뒷받침한다.⁴⁹ 이러한 기술 추이는 재료의 물성이 단단해 문양 시문시 각이 경직되어 구성 요소만을 반영해 도식화해야하는 유동의 약점을 합금, 제작 기술 개량을 통해 개선을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건축문과 당초문은 이러한 기술개량과 함께 전개되었다. 고건축문은 근대기 신선로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문양 중 하나이다. 당시 명승고적을 시각화해 토산품에 적용, 소비했는데 고건축문은 그 일환으로 도입된 문양 소재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전통기물인 신선로에 명승지로 유명한 건축물을 넣어 신선로의 토산품적 성격을 배가시켰다. 남대문, 광화문, 을밀대 등 고성문과 성벽이 주요 소재로 채택되었다.

동합금인 유동, 황동, 백동이 신선로의 바탕재로 사용되었으며, 발색과 물성을 잃지 않은 선에서 기물성형과 문양시문에 용이하게 바탕재의 합금 비율이 조정되었다.⁵⁰ 문양은 은제신선로와 마찬가지로 기형을 완성한 후 뚜껑과 동체에 시문했다. 선각의 세부기법인 직선조를 사용해 끊어지지 않는 직선으로 성문과 성벽의 형태를 완성하고 기와의 표현이나 산, 나무 등은 직선조와 선을 얇게 표현하는 모조(毛彫)법을 병용했다. 문양 여백에 남대문, 광화문 등 문양소재의 실제 명칭을 새겼다. 유물 중에는 건축물을

47 입근혜(2016), 앞의 논문, 120-121쪽.

48 《동아일보》, 1928년 9월 28일자.

49 《동아일보》, 1928년 11월 12일자.

50 입근혜(2016), 앞의 논문, 121쪽.



도8-〈유제신선로〉, 일제강점기,
서울역사박물관. 남대문 문양, 사람 배치 無.
높이 6cm, 너비 22.8cm



도9-〈신선로〉, 일제강점기, 경성 해시상회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높이 18.2cm, 너비
20cm. 광화문, 남대문 문양. 사람 배치 有.

구경하는 사람을 함께 넣은 것도 있다. 뚜껑에는 성문의 구성 풍경이 동체의 중심문양을 보조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당초문, 문자문, 태극문 등이 화구를 축으로 해 띠처럼 배치되었다(도8, 9). 문양의 구도와 요소는 엽서나 신문 등의 삽화나 사진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⁵¹

IV. 신선로의 소비문화 변화와 역할의 확장

서구에서 도입된 다양한 문물들과 기계로 제작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이전보다 대체할 수 있는 기물의 선택 폭을 크게 확장했다. 여기에는 당대의 시대상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기물은 사용하는 것이기에 소비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한 사회의 소비 경향과 유행, 문화, 그리고 기물의 쓰임과 역할의 유지, 확장,

⁵¹ 윤채원(2019). 앞의 논문, 37쪽.

도태의 주요 요소이다. 기물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근대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것보다 장점이 많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물이 고안되면 대체되었다.

19세기 말~20세기 기물 중 기존의 용도와 제작 체제를 고스란히 유지한 기물들도 많다. 하지만 서구식 기물에 대체되어 쓰임을 상실하고 멸실되거나 소비가 대폭 위축된 기물들도 있다. 반대로 시대상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기존의 쓰임이 확장된 경우도 있다. 신선로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기물이다. 조선에서 전승된 고유의 일상기 위치를 유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역할이 더해졌다. 본 장에서는 신선로의 소비 양상과 변화를 가져온 배경을 분석해 근대기 변모한 신선로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열구자탕의 성행과 식기, 예물 역할의 전승

근대기에도 열구자탕은 여전히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중 하나였다. 신문 등 대중매체에 조리법이 소개되기도 하고⁵², 신선로의 유래에 대해 서술한 글들이 수록되기도 했다.⁵³ 또 일제강점기 조리서인 홍선표의 『조선요리학』(1940년 판), 이용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43)의 표지 소재로 활용될 만큼 조선의 대표적인 요리로 자리했다.⁵⁴(표6) 이는 1900년대 한식을 취급한 근대식 식당인 조선요리옥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52 『매일신보』 1924년 9월 7일자. 음식솜씨: 신선로별법, 아욱국과 같이 신선로의 조리법을 소개하거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자주 확인된다.

53 홍선표, 「六味八珍: 神仙爐·一器會」, 『家庭之友』(朝鮮金融聯合會, 1939); 홍선표, 「逸史片片)神仙爐의由來」, 『野談』(野談社, 1936) 등 다수의 잡지와 신문기사에서 확인된다.

54 주영하, 「신선로, 조선요리옥의 상징이 되다」, 『식탁 위의 한국사』(휴머니스트, 2013), E-Book.

표6-일제강점기 인쇄매체에서의 신선로 이미지 표현 사례

		
홍선표, 「六味八珍: 神仙爐·器會」, 『家庭之友』(朝鮮金融聯合會, 1939)의 신선로 삽화와 글	홍선표, 『조선요리학』, 1940년 출간본 표지.	이용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1943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구자탕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애호한 음식이기에 수요계층은 한정적이었다. 이는 열구자탕에 들어가는 재료, 은이나 동을 사용한 탕기의 바탕재로도 알 수 있다. '명월관(明月館)'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식당이었던 조선요리옥은 일제강점기 누구나 돈이 있으면 들어가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즉, 상류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던 음식을 돈만 있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열구자탕은 고급 음식이면서 조리 과정의 극적인 면모, 자극적이지 않은 맛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해 조선요리옥의 대표 음식으로 정착했다.⁵⁵ 조선요리옥의 성행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다채로운 맛을 지닌 조선의 상징적 음식으로 인식하게 했다. 1925년 『개벽』에 수록된 재조선 독일인의 글은 이러한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⁵⁶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인 대한제국기에도 신선로는 외국

55 주영하, 「조선요리옥의 탄생: 안순환과 명월관」, 『동양학』 50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142쪽.

56 『개벽』 61호 1925년 7월 1일자, 「朝鮮에는 四美가 있습니다: 法學專門學校長 事務取扱 教授 鷹松龍種氏 談, 獨逸人 盧炳朝氏 談」. “나는 朝鮮에 와서 묻지 조케본 것은 自然의 美을 시다. 朝鮮의 기후라던지 산수는 참으로 쫓습니다. 金剛山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산이 낫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업거니와 기타의 산수도 다 쫓습니다.”

사신들을 위한 연회에 올라오는 주요 음식 중 하나였다. II-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린수지』의 예문에 등장할 정도로 열구자탕과 이를 담고 조리하는 그릇인 신선로에 대한 대외 인식은 일부 형성된 상태였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조선요리과 조선요리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신선로 역시 조선을 상징하는 대표적 식기 중 하나로 부상했다.

열구자탕을 담는 식기인 신선로는 예물로 제작해 하사하기도 하였다.⁵⁷ 이러한 신선로 활용은 II-2장에서 언급한 현지 일본인들에게 신선로를 예물이나 선물로 활용했던 조선통신사의 사례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908년 국권침탈이 본격화 된 후 기사에서는 황실에서 일본인에게 신선로를 하사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다. 이 기사들 중에는 신선로를 아예 기념품이라고 명시한 경우도 있다.

선물 받은 대상 중에는 1909년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후임 통감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1849-1910)의 부인도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조선 병탈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군대해산, 외교권과 경찰권 및 사법권 박탈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소네 통감의 부인에게 준 기념품 중 신선로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신선로가 일제강점기 이전 이미 황실용 토산 기념품으로 위치가 확고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1914년 순종이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王)와 아사카 야스히코(朝香宮鳩彦王)에게 은제신선로를 선물한 순종실록 기사에는 이미 신선로를 조선의 토산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⁵⁸ 이는 신선로를 기념품으로 명시한 앞의 자료

(...) 그 중에 神仙爐, 藥食, 김치(沈菜) 등은 요리의 방법이라던지 맛이라던지 보기
에라던지 참 죽코 자랑할만합니다.”

57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2019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특별전: 대
한제국 황제의 식탁』(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2019), 49쪽.

58 『純宗實錄附錄』 卷5, 순종 7년(1914) 6월 18일. “兩宮, 各饋贈朝香宮, 東久邇宮兩殿下土

표7-대한제국기 황실의 신선로 선물 관련 주요 기사

선물목록	내용	하사대상	출처
은제신선로	實業開會 漢城實業協會에서 本月拾九日■後五時에 日本俱樂部에서 例會를 開 ^{한국어} 았는디 韓日人二拾一名이 來參 ^{한국어} 하고 會長鶴原氏는 辭任 ^{한국어} 故로 其代에 木內農工商部次官으로 推選 ^{한국어} 事와 前會長鶴原氏에게 紀念으로 銀製神仙爐를 贈與 ^{한국어} 事를 滿場一致로 可決 ^{한국어} 고 又來月中旬頃에 例會를 開 ^{한국어} 기로 決議 ^{한국어} 고 午後拾二時에 散會 ^{한국어} 았다더라	前會長鶴原氏 (일본인)	《황성신문》, 1908년 11월 22일자
은제신선로 각 1좌(壹座) -기념품 명시	贈■議定 長谷川大將과參謀將牟田中將兩氏가 歸國 ^{한국어} 事에對 ^{한국어} 하야 餉別의 誼를 表 ^{한국어} 기爲 ^{한국어} 하야 俞吉濬張憲植趙鎮泰其他某某紳士等이 發起 ^{한국어} 하고 紀念品으로 銀製神仙爐各壹座式을 贈送 ^{한국어} 기로 協議 ^{한국어} 하였다더라	長谷川大將과參謀將 牟田中將兩氏(일본인)	《황성신문》, 1909년 1월 17일자
은제신선로 각 1좌 -기념품 명시	爐價反對 長谷川大將과牟田中將이 遷任歸國에 對 ^{한국어} 하야 某某紳士가 發起 ^{한국어} 0이 紀念品으로 銀製神仙爐各一座式을 贈送 ^{한국어} 기로 煙額은 漢城內營業人에게 排歎 ^{한국어} 는 中인디各典當舖主人들은 極口反對 ^{한국어} 하였다더라	長谷川大將, 牟田中將 (일본인)	《황성신문》, 1909년 1월 17일자
신선로 1대 은제주배 1조	소上 我皇太子殿下게 ^{한국어} 옵서 昨日에 田中前宮內大臣에게 銀製花鉢一雙, 花房現宮內大臣에게	花房現宮內大臣 (일본인)	《황성신문》, 1909년 7월
은제회발 1쌍	銀製酒盃一組及神仙爐一臺를 贈與 ^{한국어} 하였다더라	田中前宮內大臣 (일본인)	13일자
직물 4권 신선로 2개	한國 大皇帝皇后 王陛下 ^{한국어} 에 ^{한국어} 옵서 曾彌統監의 夫人 照子에게 織物四卷 神仙爐貳個를 下賜 ^{한국어} 하였다더라	曾彌統監의 夫人 照子 (일본인, 통감 부인)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3일자
직물 4필 신선로 2개	下賜大皇帝 皇后 兩陛下 ^{한국어} 에 ^{한국어} 는 曾彌統監夫人 照子에게 織物四疋 神仙爐二個를 下賜 ^{한국어} 하였다더라	曾彌統監의 夫人 照子(일본인, 통감 부인)	《황성신문》, 1909년 10월 23일자(위와 동일 내용)

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적 선물용 신선로의 토산품적 성격은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 형성된 인식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제작자: 王殿下, 銀製神仙爐各一組二箇入, 太王殿下周鑾鑾尊式銀製花瓶各一箇, 不老緞各二疋, 花欄織各二疋.”

신선로는 흥선대원군 묘 출토 (20세기 전반, 표 1 도판 참조)처럼 이전과 같이 부장품으로의 확인된다.

전통적인 신선로의 용도인 식기, 조리기구, 예물, 기념품, 부장품으로서의 역할은 근대기에도 유지되었다. 오히려 조선요리의 성행으로 열구자탕 대표적인 조선의 음식으로 사회에 확산되고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대표적 지역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신선로는 조선의 대표적인 식기라는 상징성이 더해졌다.

2. 조선 관광의 유행과 토산품으로의 소비

신선로는 IV-1장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쓰임에 민간의 기념품, 토산품, 감상을 중심으로 한 미술품으로의 역할이 더해진다. 우선 기념품으로의 역할은 조선시대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시전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인지 1890-1900년대 외국인의 흥미와 기념품으로의 소비도 있었다. 이 시기 신선로를 포함한 외국인의 조선 공예품 소비 목적은 흥미와 여행기념, 실사용 등이 확인된다.⁵⁹ 또 조선의 식문화와 제작문화 등 조선의 공예품을 둘러싼 인류학, 민속학, 문화학적 연구자료 목적의 소비도 존재했다. 이는 당대 유행했던 오리엔탈리즘과 관계된 문물소비와도 연결된다.⁶⁰ 그래서인지 일제강점기에 토산품으로 소비된 신선로와 19세기 말-20세기 초 연구를 목적으로 수집한 신선로에는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 토산품으로 소비된 신선로는 고건축문과 같은 상징 문양이 적용된

59 김세린, 「기산풍속도로 본 개항기 유기의 제작과 외국인의 소비」, 『정신문화연구』 39(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314쪽.

60 김수영, 『수출회화로서 기산 김준근 풍속화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5쪽.



도10-〈유제신선로〉, 조선 19세기,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 박물관 마이어 컬렉션 (1900년대 입수). 높이 13.5cm, 너비 19cm

경우가 많다. 반면 일제강점기 이전에 수집된 신선로 중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과 같이 조선에 있었던 자국민을 통한 연구목적 수집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유물들은 실제 식기로 사용했던 신선로를 위주로 수집되었다.⁶¹ 그렇기에 이 시기 수집품 유물에서는 실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동제 무문 신선로가 다수이다 (도10).

일제강점기 조선 토산물로서 신선로의 역할은 소비되는 사회인 일제강점기 조선과 이를 소비하는 일본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신선로는 조선을 대표하는 토산물로 1918년 교육가정박람회 등 여러 박람회와 공진회에 출품되었고, 해외로 수출되었다.⁶² 이 시기 박람회나 공진회 출품작, 토산품 선정은 총독부와 각 도의 행정부에서 진행했다. 선택된 것은 신선로, 동제공예품, 은기, 나전칠기, 도자기, 풍속인형 등이다.⁶³ 이렇게 선택된 토산품에 대한 인식은 공예품의 의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관광 문화가 반영된 명승지 문양이 신선로에 적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관광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61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은 독일의 마이어 상사가 제물포에 설립한 세창양행을 통해 수집을 진행했다.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의 신선로는 19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세창양행을 통해 조선 말-대한제국기 수집한 에드워드마이어(Eduard Mey er: 1855-1930)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입수, 수집품에는 명승지문이 적용된 토산품 성격의 동제 신선로들이 있다.

62 《매일신보》 1918년 11월 22일자 기사 등. 수출 사례는 주 41 논문 참고.

63 윤채원, 「한국 근대 공예품의 명승고적(名勝古跡)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9), 37-38쪽.

일본인에게 조선에 대해 일본이 통치하는 새로운 일본 영토인 신내지(新内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 때 사용한 여행안내서는 관광을 촉진하는 수단이자 식민 통치 수단 중 하나로 긴요하게 이용되었다. 여행 안내서에는 총독부에서 선택한 명승 고적을 소개하고, 관련 이미지들을 담아 흥미를 유도했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식기, 장신구, 혼례용품 등을 토산품으로 소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서의 소비를 촉진시켰다.⁶⁴ 신선로도 그 중 하나였다. 문양 소재가 된 명승고적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다. 이미 명승지로 정착한 장소 중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관점으로 선별해 공예품에 반영되었다.⁶⁵ 토산품용 신선로의 고건축문 역시 당시 조선의 이미지로 채택된 소재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토산품 형성 과정이 끝난 1920년대 말-1930년대 소비된 의장은 이미 정착된 이미지가 재생산되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선로의 소비는 식기와 기념품, 토산품으로 광범위 했으며, 사회 내의 친숙한 공예품으로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증정품으로의 소비도 활발했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신선로>(1920-1930년대),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신선로>(일제강점기)처럼 신선로에 고건축문이 결합되어 토산품적 의장이 적용됐으나, 실제로는 단체의 증정품으로 사용했던 사례이다. 증정용 신선로는 굽바닥이나 뚜껑의 명문을 통해 확인된다(표8).

64 박희연, 「근대 한국의 사경산수화 연구: 1930년대 『동아일보』 연재 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14-15쪽. 이러한 명승고적 선정과 정책의 추진은 1910-1920년대 추진한 조선 고적조사와 맥을 같이한다.

65 윤채원(2019), 앞의 논문, 37쪽. 근대화된 생활 속에서 자연을 그리워하거나 옛 과거를 향수하는 이미지로 들판, 오래된 성곽, 물긷는 여인, 담뱃대를 든 흰 옷의 남자 등이 대표적으로 소비된 이미지이다.

표8-신선로의 단체 증정품 사례와 명문

도판		
유물명	〈신선로〉, 1920-30년대, 국립부여박물관 높이 14.9cm, 너비 17.2cm	〈동제신선로〉, 일제강점기, 원광대학교 박물 관. 높이 14.2cm, 너비 18.2cm
유물 명문	‘贈 八協產業株式會社’	‘貳百八十萬校突破記念·沃溝郡農會昭和十日年’

V. 맷음말

근대 이전 신선로의 주된 용도는 열구자탕을 조리하는 도구이자 섭취할 때 사용하는 식기였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담아 먹는 열구자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기이자 도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고안된 공예품이다. 도구가 본래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면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과 형태적 개량을 거듭해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신선로 형태와 구조의 정착 과정은 충분히 짐작된다.

20세기 초 신선로는 왕실의 식기와 혼수품, 사대부 층의 식기 등 본래의 역할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선요리와 음식문화의 확산으로 열구자탕과 이를 담는 식기인 신선로의 향유층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일본인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조선의 토산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다. 이는 일제강점기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닌 17세기 이후 일본사회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예품 제작과 판매를 함께했던 곳에서는 조선의 토산품으로 신선로를 취급했다. 근대 이전과 동일하게 주문생산을 유지한 곳도 있었고, 현대의 기성품처럼 일정량의 소비 수치를 예상한 후 제작해 진열하는 상점도 존재했다. 이는 이전 시대와는 분명 다른 양상이었다. 신선로의 이러한 양상은 근대기 공예의 여성과도 연결된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공예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이전의 역할을 유지한 공예품도 존재하며 조형적 상징이나 작품 그 외 요소들이 부각되어 역할이 완전히 변모한 것도 있다. 신선로는 근대 공예의 변화한 모습을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로를 중심으로 근대기 변화한 수공예품의 성격과 소비 양상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신선로 기종 하나에 대한 분석이었지만, 공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근대기 이러한 양상을 내포한 전승 공예품의 기종은 매우 많다. 다른 기종들에 대한 세부 연구와 이를 종합해 근대기 전승적 성격을 지닌 공예품의 소비 양상과 수공예의 성격을 모색하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권업신문』 1913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1928년 9월 28일자, 1928년 11월 12일자.
『매일신보』 1911년 2월 23일자, 1918년 11월 22일자, 1924년 9월 7일자.
『부산일보』, 1918년 11월 7일자.
『황성신문』, 1909년 3월 10일자.
『교린수지(交隣須知)』.
『德壽宮贊侍室日記』(1913).
『無名子集』.
『受爵儀軌』(1765).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1906).
『慈慶殿進爵整禮儀軌』(1827).
『進宴儀軌』(1901).
『進饌儀軌』(1892).
『通信使贍錄』.
『海行摠載』

2. 단행본

- 『고문서집성20: 병산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32: 경주 경주순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II: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大京城都市大觀』. 朝鮮新聞社, 1937.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2019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특별전: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2019.
서울역사박물관, 『운현궁 생활유물 X』. 서울역사박물관, 2012.
주영하, 『식탁 위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2013.
진경환, 『조선의 잡지: 18~19세기 서울 양반의 취향』. 소소의 책, 2018.
최공호,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 한국근대공예사론』. 미술문화, 2008.

홍선표, 『한국 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3. 논문

김세린, 『조선시대 금속공예 입사(入絲)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기산풍속도로 본 개항기 유기의 제작과 외국인의 소비」. 『정신문화연구』 39,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281-320쪽.

김수영, 『수출회화로서 기산 김준근 풍속화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안나, 「운현궁 금속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박희연, 「근대 한국의 사경산수화 연구: 1930년대 『동아일보』 연재 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서지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윤채원, 「한국 근대 공예품의 명승고적(名勝古跡)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임근혜, 『안성맞춤유기(鎰器) 생산전통의 구성과 지속』.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정지희, 「한성미술품제작소 설립 및 변천과정 연구」. 『미술사학연구』 303, 한국미술사학회, 2019, 233-256쪽.

_____, 「20세기 전반 한국 은공예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정희경, 『조선후기 의궤도설과 기록화를 통해서 본 연향 연구: 음식상 배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대한제국기 진연의 의례음식상 공간연출과 정치적 함의」. 『미술사학연구』 287, 한국미술사학회, 2015, 57-81쪽.

주영하, 「조선요리옥의 탄생: 안순환과 명월관」. 『동양학』 5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1, 141-162쪽.

최공호, 「공예(工藝), 모던의 선택과 문명적 성찰: 용어 사용 이후의 위기와 어젠더」.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23-35쪽.

홍선표, 「六味八珍: 神仙爐·一器會」. 『家庭之友』, 朝鮮金融聯合會, 1939.

4. 사이트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hc.go.kr/service/index.nihc).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서울역사박물관(museum.seoul.go.kr).

이뮤지엄 홈페이지(www.emuseum.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문서자료관 홈페이지(archive.aks.ac.kr).

국문초록

근대 이전 신선로의 주된 용도는 열구자탕을 조리하는 도구이자 섭취할 때 사용하는 식기였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담아 먹는 열구자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기이자 도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고안된 공예품이다.

20세기 초 신선로는 왕실의 식기와 혼수품, 사대부 층의 식기 등 본래의 역할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선요리옥과 음식문화의 확산으로 열구자탕과 이를 담는 식기인 신선로의 향유층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아울러 일본인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조선의 토산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다. 이는 일제강점기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닌 17세기 이후 일본사회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조선에서 근대로 이어진 신선로의 이런 양상은 근대 공예의 여정과도 연결된다. 식기라는 본래의 쓰임을 유지하며, 사람의 손으로 조선 공예가 지닌 솜씨와 조형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정착했다. 이처럼 신선로는 단순한 식기가 아닌 근대 공예의 변화 양상을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기물임을 알 수 있었다.

투고일 2020. 12. 21.

심사일 2021. 1. 20.

제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신선로(Sinseollo; The brass chafing dish), 해시상회(Heasisanghoe), 조선미술품제작소(The Joseon Craftwork Manufactory), 토산품(Local product), 조선요리옥(Korean restaurant)

Abstracts

Japanese Colonial Era Metallic Sinseollo Production and Consumption Culture

Kim, Serine

Before modern times, the main role of the Sinseollo(神仙爐) was tableware for serving Yeolgojatang(悅口子湯, 悅口旨湯). It was designed so that a heating body could be put in so that the temperature of the food to be warmed while eating could be maintained while putting in Yeolgojatang well. From a point of view, the Sinseollo has tableware so that it can be conveniently us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Yeolgojatang, which is eaten with some ingredients, and is faithful to its original role so that it can efficiently perform the role of a tool. Can be a craft designed for.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Sinseollo maintained its original role as royal tableware, wedding rings, and aristocratic tableware. Here,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Yeolgojatang and the Sinseollo of tableware to put it in the Korean restaurant(조선요리屋) and the spread of Korean food cultur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an before. In addition, people from other countries, mainly Japanese, added the symbolic meaning of Korean souvenirs.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is was a phenomenon that was gradually formed in Japanese society after the 17th century, which did not emerge sudden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aspect of the Sinseollo, which led to modern times in Korea, is also connected to the journey of modern crafts. It has been established as a symbol that maintains the original usage of tableware and shows the skill and modeling of Korean crafts by hand. In this way,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e Sinseollo is not a simple tableware, but a show of changes in modern crafts in many ways.

